

‘저녁이 있는 삶’ 주 52시간 근로시대

기업 추가 부담 증가 우려...노동계 휴일수당 150% 책정 불안 근로기준법개정안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저녁이 있는 삶’, ‘여유 있는 삶’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는데 따른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저녁이 있는 삶=국내 법정 근로시간은 지난 2004년 이후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제 50조)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휴일근로(제56조)가 가능하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서

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사실상 최장 68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환노위는 이 같은 점을 감안, 토요일을 포함해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180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280곳)과 5~49인 사업장(4만3416곳)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정책팀 설명이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육상

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의업 등 5종으로 대폭 줄인 점도 눈길을 끈다. 당장, 특례업종 대상 노동자 수가 기존 453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워라밸’(Work-life Balance) 열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 미만인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바람이 사회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부담스러운 기업들=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 근로 가산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환노위는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은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불만섞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소상공인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아르바이트생 구인난에 주말 저녁 장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계도 불만족=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환노위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환노위는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업들 우려 dok2000@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6.14 (-1.51)	↓ 금리 (국고채 3년) 2.26% (-0.01)
↓ 코스닥 874.01 (-0.42)	↓ 환율 (USD) 1071.30원 (-2.10)

한은 기준금리 1.5% 동결 GM 사태 등 경기 불확실성 커져...한·미 금리 역전 임박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0%로 유지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한은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작년 11월 금리를 0.25%p(포인트) 올린 이후 두번째 동결 결정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한은도 6년 5개월 만에 금리 방향을 크게 돌렸지만 추가 인상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도 3%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경기 불확실성 커져...한·미 금리 역전 임박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

국 경제 성장동력인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고 GM 공산공장 폐쇄 등이 겹치며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온도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선 소비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은 저금리 정책의 대표 부작용이지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 금리 역전도 임박했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연 1.50~1.75%로 인상하면 한미 금리는 지난 2007년 8월 이래 10년여 만에 역전한다. 한은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인상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요인이지만 향후 성장과 물가,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수호랑·반다비 광주에서 사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평창올림픽 폐막 후에도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의 인기가 이어짐에 따라 1층 공식스토어를 패럴림픽 폐막일인 오는 3월18일까지 운영. 마스코트 인형제품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전남 지난달 미분양 주택 1249채

한달새 99.2% 늘어...광주는 20.5% 줄어 562채

전남지역 분양 물량이 늘면서 미분양도 증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남지역 미분양 주택은 1249채로, 전달(627채)보다 622채(99.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난해 말 목표 오피스구 대우 푸르

지오(1531세대)와 호반 베르디움(1388세대)의 분양 물량이 반영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지난달 말 미분양 주택은 562채로 전달(707채)보다 145채(20.5%) 감소했다. 광주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7% 채) 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광주의 경우 증가(259채→273채), 전남은 감소(350→341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올해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지역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량이 전년(7594가구)에 견주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9104호로, 전달(5만7330호)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지을기자 dok2000@

중소기업 경기 기대감

광주·전남 3월 업황전망 22P1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오는 3월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동석)는 27일 지난 12월부터 20일 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2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3월 경기전망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SBHI)가 전월보다 2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가 전월(75.2) 대비 19.5포인트 상승한 94.7, 전남은 전월(68.3) 대비 26.1포인트 상승한 94.4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전월(73.6) 대비 18.8포인트 상승한 92.4였으며, 비제조업은 전월(72.2)대비 23.9포인트 상승한 96.1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전월대비 기저효과가 발생한 데다, 3월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비제조업도 건설업이 계절적 비수기를 벗어난다는 기대감이 작용해 경기상승 전망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광주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70.5%, 전남은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71.6%로 조사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신용대출 3주만에 100억 돌파

시간·지역 제한없이 모바일 간편 대출 호응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지난 5일 새롭게 선보인 ‘광주은행신용대출’이 판매개시 20일 만에 100억을 넘어서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은행신용대출’은 시간이나 지역에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출 신청과 동시에 계좌입금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광주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도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을 수 있다.

기존 모바일 주력 상품이었던 ‘쏠쏠한은행대출’을 전면 개편한 상품으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해 대출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최저 연 3.13%부터 신

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주부, 프리랜서 등 소득이 없어도 신용등급만으로 300만원까지 간편대출로 이용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한편, 지난해 판매했던 ‘쏠쏠한은행대출’은 10만명의 고객이 한도조화를 했고, 판매실적도 400억을 기록한바 있다.

광주은행 디지털사업부 박순정팀장은 “대출한도 상향과 낮은 금리 제공, 지역과 시간 제한 없는 간편성 등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꾸준히 디지털화에 집중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광주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4시공후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복합방수 (061)683-0485
내진보강 (061)726-0482
내구성UP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